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도시 아산

아산뉴스



호외(號外)

2020년 2월 6일(목)

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아산뉴스'로 연결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위해 “우리의 소임 다하겠다” 오세현 아산시장 “매일 현장에서 대책회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월 2일 오전 10시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 인근 초사동 현장 시장실에서 일일 대책상황보고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다짐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교민들은 인재개발원에 1일1실로 완전히 격리된 채 생활하고 계시고, 이 주변은 관리 및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져 오히려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주민들은 심리적으론 불안하실 수 있어 지속적이고 철저한 방역과 함께 현장에서 대책이 이뤄질 때까지 매일 진행하고 있다”며 “감염증 예방은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산시는 이날부터 방역 횡수를 늘려 초사동은 물론, KTX천안아산역과 지하철역사,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와 어린이·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1일 2회 방역을 실시한다. 시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은 초사동 주민과 취약계층

에 우선 전달하고, 각계에서 보내온 후원 물품은 보건소가 수급상황을 총괄해 적재적소에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 시장은 담당 간부들에게 관광객 감소, 전통시장 손님 이용 상황 등에 대한 변동 추이를 면밀히 확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공직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물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 성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초사동, 신정호 등이 상권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주민 접촉 등에선 세심한 접근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소소한데서 불안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역민의 입장을 배려하고 필요한 물품은 부족함 없이 최대한 배부하겠다”며 “이번 위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해 아산이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발행일 2020년 2월 6일(목) 발행인 아산시장 편집인 홍보담당관
주소 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456 (온천동) 전화 041-540-2090 팩스 041-540-2162 홈페이지 www.asan.go.kr



아산뉴스 편집디자인에 사용된 서체는 아산사에서 개발한 아산신 폰트체 L, M, B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보이스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앱 코드를 스캔하시면 '아산뉴스'를 음성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사랑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오늘도 입소 5일째를 맞은 이 시작까지 우린 교민들은 병든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현재 아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확산 차단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왜곡된 정보와 불필요한 오해도 소대된 유언비어들이 일부 떠돌고 있습니다. 특히 초사리 주민들과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아산시는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생업에 충실해 주십시오.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낭만하고 의연하게 이 난국을 여겨 나가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지역경제의 위축과 관련해 아산시는 중앙정부에도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 하였으며, 시 역시 실효성 있는 개선택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시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나서야 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해주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업소를 자주 찾아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 될것입니다.



저는 이번 감염병 국면이 아산시를 하나로 화합시키고, 잠재된 역량을 끌어내며, 미래 더 큰 아산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해주실 34만 아산시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2020년 2월 4일

아산시장 오 세 현

아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가동 24시간 방역태세와 신속 대응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1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기존 아산시보건소에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의 초사리동 마을회관 근처로 이동설치 했다. 시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황 악화되고, 31일 우안교민을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가운데 24시간 방역태세와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책본부를 현장 가동한다. 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에 전파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대책본부는 대책반과 지원반으로 꾸려졌으며 주요 업무는 격리병상환자

점검, 소득 및 방역,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협조, 의심환자 선별진료, 유상증상자 진료, 밀접접촉자 파악, 농동/수동 감시자 모니터링, 자가격리자 지원관리, 민원상담 등이다. 이와 함께 아산경찰서, 아산소방서, 아산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시민안전과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24시간 대응체계로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확산차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24시간 대응...방역 고삐 당긴다. 아산시보건소, 방역범위 확대

아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확산을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1차·2차 우안교민 입소 완료로 더욱 방역 고삐를 당기고 있다. 24시간 방역태세에 돌입한 아산시보건소와 관련해 3일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민안전에 불철주야 방역과 예방 활동을 펼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완전 종식 때까지 방역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하면서 "인력 운영 등 어려움이 있을 시 총괄 또는 지원부서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초사리동에서 온양5동, 지하철역사, 터미널, 다중집합장소 등 7개소로 방역범위를 확대해 소독을 매일 진행 중이며, 어린이·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관공서로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위생 및 감염병 예방수칙과 관련해 포스터 5만2000부 배부, 대형 전광판, 문자안내, 마을 앱방송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활동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마스크 40만여 개, 손 소독제 6000개 등 신종 코로나 예방물품을 감염 취약계층을 위해 배부하고 있다. 또한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비밀(침방울)에 의해 전염되며 공기로는 전파되지 않는다'는 정확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마스크 등 감염증 예방물품 사용법과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상세히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 9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을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Q1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

A.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사람간 전염이 되나요?

A.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폐렴에 대해서는 제한적 정보뿐만 중국 보건당국과 WHO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라는 점과 일부 사람 간 감염도 있는 있을 수 있음이 알려졌지만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경로,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Q3 중국에서 발생하는 폐렴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A.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현재 정확한 치명률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Q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진단법이 있는지요?

A. 질병관리본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과 염기서열분석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한 검사를 위해 특이 검사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Q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A.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치료는 증상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Q6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이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 여행을 가도 되나요?

A. 대한민국정부는 최근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여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를 발령하였습니다. WHO에서는 중국을 여행 제한구역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해외 여행력을 이력진에게 알리기!
-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 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Q7 중국 여행 시 감염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 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8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을 방문하고, 입국할 경우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A.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며 발열,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하여 국가 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Q9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A.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감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어 이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및 근교 도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병원

- 아산시 아산충무병원 ☎ 041-536-6666
- 천안시 단국대학교대학 부속병원 ☎ 041-1588-0063
- 천안시 학교법인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 ☎ 041-570-2018
- 천안시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 041-570-7555
- 천안시 충청남도천안의료원 ☎ 041-570-72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



아산시는 모바일 메신저, SNS 등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청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최초 생산자 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엄정 수사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1 손바닥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2 손등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3 손가락 사이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주세요

4 두 손 모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5 엄지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6 손톱 밑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아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감염병 예방 수칙

손바닥, 손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인천 39개, 서울 11개, 부산 1개, 대구 1개, 광주 1개, 대전 1개, 울산 1개, 세종 1개, 충북 1개, 충남 1개, 전북 1개, 전남 1개, 경북 1개, 경남 1개, 제주 1개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동행 접촉 금지

한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기침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 [해미감염병 NOW](#) [예차](#) 발행일 : 2020. 1. 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아산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1. 경찰인재개발원 조입(조사2통)에 신속 대응 현장 시장실 운영
2. 현장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이동진료소 설치 운영
3. 선별 진료소 및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4. 조사2통 주민,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배부
※ 아동복지시설, 75세 이상, 경찰 등 지원기관, 다중이용시설 배부 계획
5. KTX천안아산역, 아산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매일 방역
6. 시내버스 1월 1회 방역, 손 세정제 비치, 내중교통 운수 종사자용 마스크 보급
7. 노인·장애인·아동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모니터링 및 예방수칙 전파
8. 시 홈페이지, 아산톡톡, 시청신문, SNS채널 등 매체를 통해 전 시민 예방수칙 홍보

아산시 음봉면 주민, 우한 교민 위해 마스크 전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물품, 온정의 손길"

아산시 음봉면 포스코아파트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 '누리보듬 (대표 이지연)'과 '포스코봉사단(대표 이은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펼쳐, 모아진 450여개의 마스크를 2월 3일 경찰인재개발원을 방문해 격려 수용 중인 우한 교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을 주도한 이지연, 이은영 대표는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으며, 가족들이 쓸 마스크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